

한우 자조금

www.hanwooboard.or.kr

2014년 1월호

기획특집

2014년 한우산업의 과제

이슈

- ① 2014년 새롭게 바뀌는 축산정책
- ② 가축 방역대책 안내

현장르포

한우의 새로운 판로개척 현장을 가다

Information

한우자조금 이렇게 쓰입니다



이 땅 위에 자란 한우의 사명감을 가지고, 묵묵히 땀 흘리는 농가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성기 한우자조금관리위원장

한우농가 여러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14년 갑오년은 그 어느 해보다 건강하고 행복한 한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지난해를 돌이켜 보면 참으로 절망과 희망이 교차했던 한해였던 것 같습니다. 사료값 인상과 한우가격 폭락으로 인해 수년째 어려움이 계속됨에 따라 지난해만 약 2만여의 한우농가가 사육을 포기하였습니다. 그야말로 한우산업의 붕괴, 벼랑 끝 위기였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우자조금을 비롯해 한우협회, 농협 등이 함께 펼친 할인행사 와 직거래장터는 소비자들로 하여금 한우를 다시 선택하게 하였고 그 결과 소비가 점차 늘어나면서 추석이후에는 한우 가격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 한해도 이 땅 위에 자란 한우가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영양 공급원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묵묵히 땀을 흘리고 있는 한우농가를 위해서 어제의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한우산업 지킴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또 한 번의 지혜가 필요한 2014년 내내 한우산업에 종사하시는 모든 분들의 건강과 희망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다시 한번 기원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

어려운 시기에 협회를 중심으로 단합해, 우직한 소의 뚝심으로 역경 이겨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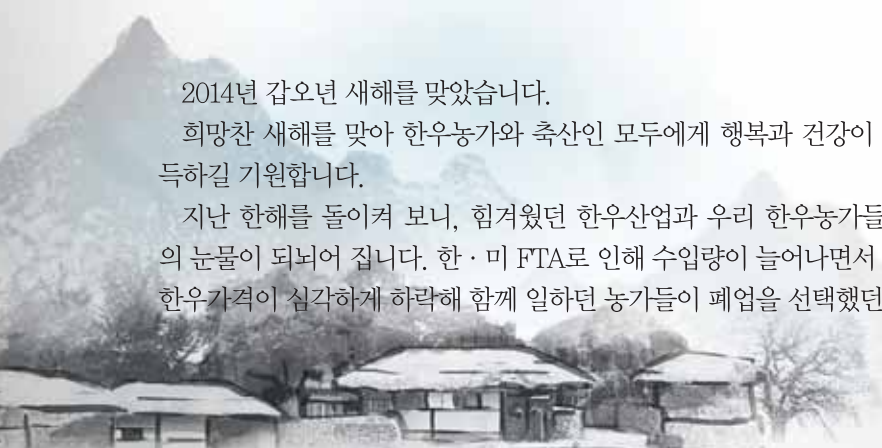


이강우 전국한우협회장

2014년 갑오년 새해를 맞았습니다.

희망찬 새해를 맞아 한우농가와 축산인 모두에게 행복과 건강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지난 한해를 돌이켜 보니, 힘겨웠던 한우산업과 우리 한우농가들의 눈물이 되뇌어 집니다. 한·미 FTA로 인해 수입량이 늘어나면서 한우가격이 심각하게 하락해 함께 일하던 농가들이 폐업을 선택했던



힘겨웠던 한 해로 기억됩니다.

최근에는 청천벽력과 같은 한·호주 FTA 체결과 한·캐나다, 한·뉴질랜드 협상뿐 아니라 더 나아가 TPP라는 난제가 우리앞에 있지만, 우리는 냉철하게 상황을 판단하고, 우직한 소의 뚝심으로 이 역경을 이겨 나가기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할 것입니다.

새해가 시작되면 으레 다짐을 하곤 하는데, 이제 우리 농축산업은 굳건한 다짐 없이는 이겨나가기 어려울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야 말로 협회를 중심으로 농가들이 단합해 공동 대처하고, 우리 스스로가 함께 희망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석전경우(石田耕牛)라는 말처럼, 거친 자갈밭을 가는 황소와 같이 힘들고 진도가 쉬이 나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매진하여 뜻을 이루는 한 해를 만들어 봅시다.

건강하시고, 복된 한 해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㉞

한우인 · 한우자조금 대의원 한마음으로 난관 극복 후대에 물려줄 자랑스런 산업으로 만들자



한영섭 한우자조금 대의원의장

존경하는 한우인 여러분!

제5대 한우자조금 대의원 의장 한영섭 인사드립니다.

희망찬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올해는 희망과 신뢰를 상징하는 파란 색과 12간지 중 역동성을 대표하는 말이 어우러진 청말 띠의 해입니다. 올 한해도 역동적이고 희망찬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며 여러분 모든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 한해를 돌이켜 보면 희망과 절망이 함께 한 한해였던 것 같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침체된 한우산업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그동안 각고의 노력을 펼친 한우자조금 사업이 결실을 맺어 우리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연말에 체결된 한·호주 FTA가 다시금 우리를 절망속으로 빠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우농가는 지난 한·미 FTA를 통해 이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 한해도 역시 절망이라는 높은 파고를 헤쳐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한우인 여러분과 한우자조금 대의원 모두가 뚝뚝 뭉쳐 오늘의 난관을 헤쳐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 세대에 끝나지 않고 아들, 딸, 사위에게 물려줄 수 있는 농축산업중에 최고의 산업으로 한우가 우뚝 설 수 있도록 해 나갑시다. 이를 위해 나약하지만 저 역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여러분께서도 이 역사의 현장에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㉞

※ 위 원고의 순서는 이름 가나다 순입니다.



신년메시지 02-03

기획특집 05-07

2014년 한우산업의 과제

이슈 08-11

- ❶ 2014년 새롭게 바뀌는 축산정책
- ❷ 가축 방역대책 안내

현장르포 12-13

한우의 새로운 판로개척 현장을 가다

포커스 14-15

한우 마블링의 오해와 진실

Information 16-17

한우자조금 이렇게 쓰입니다

KREI 축산관측 18-19

1월 한우 수급동향과 전망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0-21

토정비결 유래와 의미

Bravo! Life 22

세배 & 세뱃돈

화보&애독자코너 23

한우가격, 할인행사 등 경기부양책으로 견인 소비시장 변화 주목...장기적 한우소비 확대방안 마련돼야

번식의향 회복세...일관사육농가도 입식 늘려

국제곡물가 관련 사료가격 인하요구도 거세



지난해 하반기 한우가격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올해는 상황이 호전될 것이란 농가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암소감축과 각종 소비촉진의 성과가 서서히 나오고 있는 게 아니냐는 예상이다.

여전히 어려운 실정지만 이 같은 농가의 기대로 최근 번식의향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번식농가뿐 아니라 일관사육농가에서도 점차 입식을 늘리고 있는 추세다.

이처럼 한우농가의 생산의욕이 고취되고 있는 가운데 소비시장은 여전히 냉랭하다는 분석이다. 경기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만큼 한우 소

비를 늘리거나 쉽지 않을 것이란 해석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한우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소비 확대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는 주문이 늘고 있다. 올해 한우산업의 과제에 대해 조망해 본다.





번식의향 회복세

농가의 번식의향이 지난해 말부터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올해도 지속될 전망이다.

GSnJ는 지난해 정액판매추세와 암소 도축률을 통해 농가의 번식의향이 상승세라고 밝혔다. 감소하던 정액판매가 다시 반등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지난해 10월 암소도축률이 수소보다 낮아지기 시작한 것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도 농가번식의향 조사를 통해 한우농가의 번식의향이 회복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러한 변화는 시장에서도 확인됐다. 한우암소가격과 암송아지가격이 지난해 12월 도매시장에서 각각 전년대비 20%와 51%가 상승하는 등 회복세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변화에 대해서 지난해 늘어난 도축에 따른 가격 반등과 암소, 암송아지 가격 회복 심리가 반영된 것이라 분석했다. 다만 30여 개월에 달하는 한우의 긴 비육기간으로 올해는 사육마릿수 감소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농촌경제연구원 연구원은 “올해도 농가의 번식의향은 증가할 전망이지만 사육마릿수는 여전히 감소세를 이어갈 것이다”면서 “농가의 기대심리가 작용해 시기나 가격면에서 변동이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한우산업 안정화를 위한 연착륙과정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사료가격 하락

지난해는 높은 사료가격의 영향으로 한우농가의 생산부담이 컸다. 30여개월을 정성들여 키워 시장에 내도 생산비도 안 되는 가격에 팔아야 했던 것이다. 이에 따라 ‘상생’ 차원의 사료가격 인하를 요구하는 업계의 주문이 이어지기도 했다. 다행히 연말에 국제곡물가격, 환율 등이 안정되면서 농협에서 소폭의 사료가격 인하 방침을 발표했지만 농가에서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었다.

사료가격은 많은 변수를 지니고 있지만 올해는 가격 인하에 비중이 실리고 있다. 한국금융연구소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올해 사료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는 환율은 지난해대비 약세를 보일 전망이다. 세계경제성장률 반등에 따른 수출증가, 유가안정, 정상수지 흑자 등의 절상요인이 있지만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가능성, 일본의 소비세 인상과 양적완화 확대 가능성, 유로존 불안 등으로 2012년 수준으로 하락할 것이란 설명이다.

미국의 옥수수가격 하락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최근 미국의 은행권과 농업경제학계에서는 중국의 경기둔화, 브라질 등과의 수출경쟁 심화, 미국과 EU의 옥수수 소비 축소, 미국 내 재배지 확대 등으로 세계 곡물가격이 급락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여기에 정부의 사료가격 공개방침도 국내 사료가격을 안정화하는데 한몫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사료가격 투명화 대책으로 사료가격을 공개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축산농가가 업체별 사료가격을 비교해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생산업체간 공정한 경쟁을 유도한다는 취지다. 이번 방침으로 사료가격 안정화를 위한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외상거래, 현금구매 등 농가의 사료구매 방식에 따른 차이가 있는 만큼 시행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소비 확대 주력해야

암울, 절망이란 수식어로 출발했던 지난해 한우가격은 추석을 지나 회복세로 돌아섰다. 장기간의 가격 침체로 한우산업을 포기하겠다는 농가가 전체 농가의 10%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유통업체는 할인행사 등 연중 지속된 각종 소비촉진행사의 영향으로 지난해 하반기 한우가격이 오를 수 있었다고 분석했다. 소비확대를 위한 기초체력이 충분히 길러진 것은 아니지만 정부, 지자체, 유통업

체 등과 연계한 할인행사, 홍보 이벤트 등 부양책으로 일시적으로나마 한우가격을 견인해 그 효과를 봤다는 것이다. 특히 유통업체가 한우 할인행사에 동참해야 한다는 분위기를 만들어냈다는 점은 괄목할만한 성과란 평이다.

하지만 올해는 지난해만큼의 대대적인 행사가 진행되지는 못할 것이란 예상이 조심스레 제기되고 있다. 사육마릿수 감소에 따른 도축마릿수 감소가 반영된 결과 할인행사 등을 주도해 온 한우자조금의 예산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가격 변화에 민감한 소비자를 공략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는 주문이 늘고 있다. 이를 위해 농경연에서는 한우산업에 대해 공급뿐 아니라 소비상황에 대한 모니터링과 분석도 실시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등 소비시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유통업체 한 관계자는 “지난해 한우시장은 할인행사 등 경기부양책으로 가격이 견인된 만큼 소비시장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며 “장기적으로 한우소비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㉞



가축사육업 허가대상 전업규모이상까지 확대 동계 유희농에 사료작물 재배시 발직불금 지원

2014년 새해가 밝았다. 수많은 악재 속에서도 국민의 먹거리인 한우를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지난해를 뒤로하고 희망찬 새해가 시작됐다. 새해 바뀌거나 새로 시행되는 정책은 무엇이 있을까. 2014년 축산분야에서 바뀌는 제도와 정책을 정리했다.



가축사육업 허가대상 전업규모 이상 농가로 확대

기업농 수준의 대규모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했던 소·돼지·닭·오리에 대한 가축사육업의 허가대상이 오는 2월 23일부터는 전업규모(소 600~1,200㎡) 이상 농가까지 확대된다.

중소규모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허가 요건을 갖출 기간을 부여하기 위하여 축사면적에 따라 2016년까지 연도별로 확대할 계획이다.

허가대상으로 전환되는 기존 등록 농가는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축산 시설·장비 등의 허가요건을 갖춰야 한다. 다만 모든 가축사육업 허가·등록 대상은 2015년 2월 22일까지 축산관련 의무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토종가축 인정제도 시행

1월 2일부터 토종가축 인정제도가 시행됐다.

토종가축은 예로부터 우리나라 고유의 유전특성과 순수혈통을 유지해 외래종과 분명히 구분이 가능하지만, 유통과정에서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이에 한우, 돼지, 닭, 오리, 말, 꿀벌 등을 대상으로 토종가축 인정제도 시행을 통해 토종가축을 인정받고자 하는 농가가 축종별 인정기관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인정서를 교부 받을 수 있으며, 인정받는 가축은 그 축산물을 유통할 경우 토종가축임을 표시할 수 있다.

동계 유희농 활용 사료작물 재배시 발직불금 지원

경종농가 참여 유도를 통한 사료작물 재배면적 확대 및 자급률 제고를 위해 동계 유희농에 사료작물을 재배할 경우 발직불금을 지원한다.

지금까지 동계 논을 활용해 사료작물을 재배시 직불금 등 지원이 전무해 경종농가의 참여가 소극적이었으나, 동계 유희 논을 활용해 사료작물을 재배할 경우 발직불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밭직불금 지원은 2013년 동계 유희논에 파종한 사료작물부터 지원이 가능하며, 지원금액은 ha당 20만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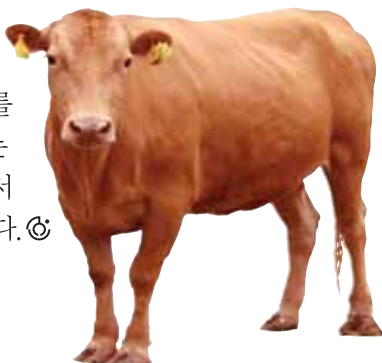
동물등록제 확대 시행 및 제도의 실효성 제고

그동안 인구 10만 이상 시·군에서 시행해 왔던 동물등록제가 1월 1일부터 전국으로 확대됐다.

동물등록제 전국 확대 시행에 따라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수수료 납부방법을 수입증지, 신용카드, 직불카드, 전자화폐·전자결제 외에 현금 및 계좌이체가 추가된다.

동물등록제 제외지역의 범위도 도서, 오지, 벽지 및 인구 10만 이하의

시·군에서 동물등록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할 수 없는 읍·면 또는 도서 지역으로 축소된다.㉔



사료구매자금(특별·직거래) 대출기한 연장 안내

사료구매자금(특별·직거래)의 대출기한이 2014년 3월 말까지 연장되며 자금 집행 상황 등을 점검해 추가 연장여부가 재검토될



예정이다. 대상자 선정 및 대출 등을 위한 지자체별 농가 배정한도를 시·도(시·군)별로 배정된 예산의 1.5배까지 증액해 운영하며, 지역 및 축종 등에 관계없이 전체 용자재원 내에서 선착순으로 대출(2014. 1~3월)을 진행한다.

이번 사료구매자금 연장은 2014. 3월말까지만 운영한다. 단 금리는 3%로 변경, 지원기간은 2년으로 통일한다. 자금별 우선순위를 선정해 집행한다. (①2013 직거래→②2013 특별→③2014 직거래) 1순위자금(2013 직거래)이 지역과 축종별로 전액 집행된 지역에 서만 후순위 자금 대출을 실행한다.

사업대상자 선정 시·군과 대출 실행 시·군은 일치(2014. 1월부터)해야 하며, 2014년부터는 선정받은 시·군에 소재한 농·축협에서만 대출이 가능하다. 단 해당 시·군에서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 시·군의 승인 하에 타 지역 대출이 가능하며, 타 지역 대출을 취급한 농·축협은 해당 시·군에 대출내역을 통보해야 한다.

» 향후 계획

- 개선방안 통보 : 즉시
- 사업대상자 추가 접수 및 대상자 선정 : 2013. 12월 ~ 2014. 2월말까지
- 선착순 대출 실행 : 2014. 1월~3월말까지
- 2014년도 직거래 구매자금 집행계획 수립 : 3월말

2018년 구제역 백신금지 청정국 추진 축산식품 수출확대 위해 주요질병 청정화 시급

2018년에 구제역 백신금지 청정국으로 전환을 추진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가칭)중장기 가축방역종합대책(안)을 마련, 가축질병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자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고자 한다.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망을 구축하고, 축산식품 수출확대를 위해서는 반드시 주요 질병 청정화가 이뤄져야 하므로 한우농가의 협조가 절실하다.

❖ 소 질병 발생 현황

(단위 : 건수)

구분	브루셀라	결핵	요네	아까바네	유행열	소 류코시스	구제역	기증저	소전염성 비기관염	광견병	렙토 스피라	큐열	합계
'11년	490	257	157	2	1	45	43	11	22	2	2	0	1,032
'12년	273	292	160	2	4	26	0	25	6	1	1	0	790
'13.10월	110	261	140	0	8	60	0	19	2	1	0	1	602

❖ 주요 질병별 3년간 동기대비 발생 현황('11~'13. 10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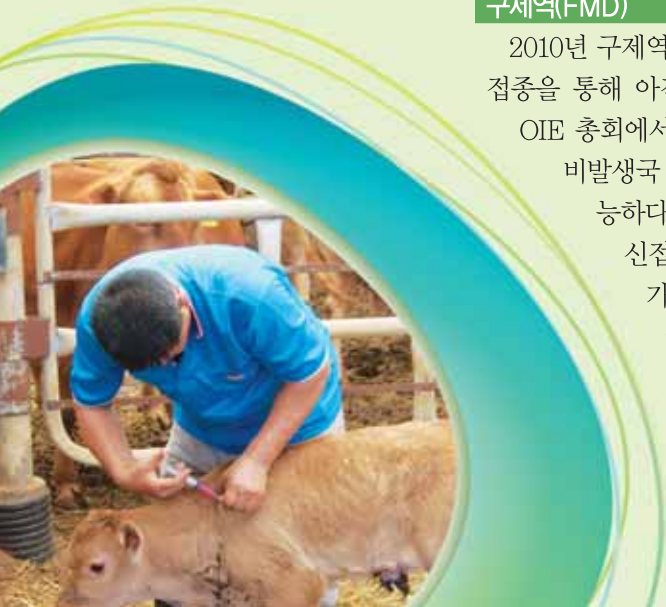
(단위 : 건수)

질병명		2011.10.(A)	2012.10.(B)	2013.10.(C)	증감비율(%)	
					(C-A)/A	(C-B)/B
구제역	건수	43	0	0	△100	-
	두수	141	0	0	△100	-
브루셀라병	건수	428	248	110	△74	△56
	두수	3,587	2,119	936	△74	△56
결핵병	건수	207	241	261	26	8
	두수	1,283	1,333	1,977	54	48

구제역(FMD)

2010년 구제역으로 인해 전국이 들썩였다. '11년 4월 최종 발생 후 백신 접종을 통해 아직까지 비발생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 정부는 '14년 5월 OIE 총회에서 백신접종 비발생국 지위를 획득하고자 추진하고 있다.

비발생국 지위 획득 시 '18년에는 백신금지 청정국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백신금지 청정국의 지위를 획득하려면 1년간 구제역 백신접종을 중단한 상태에서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아야 인증이 가능하다. 이에 '15년 5월부터 '16년 5월까지 백신접종 중단에 대한 위험도 사전평가를 거쳐 '16년 5월부터 '17년 5월까지 백신접종을 중단하고, '18년 5월 백신금지 청정국으로 지위를 획득하게 된다. 구제역 재발 방지를 위해



정부는 국내·외 검역·방역 강화를 통해 가축질병 재발방지에 총력을 다하고, 농가도 올바른 구제역 백신접종 및 농장방역이 철저히 요구된다.

브루셀라

소의 질병 중 가장 높은 발생률을 나타낸 브루셀라병은 '08년 8,409마리(1,826호)에서 발생했지만 국가의 방역정책과 농가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09년 6,571마리(1,092호), '10년 4,822마리(656호), '11년 4,070마리(490호), '12년 2,287마리(273호)로 발생농가수와 마리수가 매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는 10월말 기준 936마리(110호)에서 발생해 전년 보다 대폭 감소했다.

방역당국은 2017년 소브루셀라병 청정국을 목표로 단계별 근절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구체적으로는 확산방지 및 발생 최소화를 위한 1~2단계(2007~2010년)는 감염률 0.5% 이하를, 청정화 기반 조성을 위한 3단계(2011~2012년)는 감염률 0.2% 이하를, 청정화 추진을 위한 4단계(2013~2014년)는 감염률 0.1% 이하를 달성하는 한편 5단계(2015~2017년)는 청정화 목표 달성 및 비발생국 유지 등의 계획을 목표로 삼았다.

현재 4단계 계획을 추진 중에 있는 방역당국은 그동안 강력한 정기검사, 검사증명서 휴대명령, 살처분, 발생농가 방역 조치 등을 통한 근절 기반 마련했다. 향후 OIE 청정국 지위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관리를 강화할 것으로 밝혀 유산우에 대한 브루셀라병 검사 모니터링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결핵병

질병 발생마리수를 기준으로 소결핵병이 소브루셀라병의 뒤를 이었다. 특히 소결핵병의 경우 '08년 1,194마리(163호), '09년 1,567마리(264호), '10년 1,705마리(223호), '11년 1,689마리(257호), 2012년 1,639마리(292호)에서 발생해 발생 농가

수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올해 10월 말까지 집계에서도 1,977마리(261호)에서 발생해 최근 3년간 큰 증감없이 지속되고 있다. 방역당국은 이에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주요 다발지역을 중심으로 일제검사·살처분을 진행하며, 새로운 결핵병 검사법(소(牛) 감마인터페론법) 검사 사업을 실시한다. 또한 '15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제 1단계인 근절기반을 마련코자 하며, 이 후 청정화 단계로 진행하고자 한다.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한육우는 5개년간 전 두수 검사·양성축을 살처분하며, 결핵병 검사증명 의무화를 추진한다. 또한 3진 아웃제도 도입을 통한 청정화 기반을 마련해 3회 이상 재발농가는 전 두수를 살처분할 예정이다. ㉸

구제역 소독요령

- ▶ 농장 안·밖·축사 주변 주기적인 소독 실시
- ▶ 축사 내부 청소 및 기구 세척 후 소독
- ▶ 마스크·보안경 등 보호 장구 착용하여 안전사고 예방
- ▶ 소독약 제품별 정확한 희석배율 준수(사용설명서 확인, 알카리제와 산성제를 함께 사용하지 말 것)
- ▶ 생석회(알카리)는 물에 접촉 시 높은 열이 발생하므로 화상에 주의(생석회 위에 산성제 소독약 살포금지)

❖ 백신 접종 프로그램

축종	예방 접종 시기	접종량(1회)
소	① 송아지 : 2개월령 1차, 4주후 2차 접종 ② 모든 소(송아지 제외) : 4~7개월 간격으로 접종	2ml/마리

부산물 이용 국민대표 먹거리 라면시장 ‘도전장’

라면업계 최초 한우·사골 사용 ‘주목’

한우가 각양각색의 소비자 트렌드를 반영해 식품으로써 다양한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특히 요즈음처럼 한우의 공급이 늘어난 상황에선 특정부위만 선호하고, 적체부위의 제고가 상당하다보니 보다 많은 판로 개발로 한우의 수요를 늘리려는 노력이 절실하다. 최근 가공·유통업계는 다양한 가공제품 개발을 통해 한우 비선호부위의 적체해소와 소비 창출을 유도하고 있다. 최근 사골 등 한우부산물을 이용해 국민 대표 먹거리인 ‘라면’ 시장에 도전장을 내민 곳이 있어 화제다. 바로 농협중앙회가 지난해 9월 5일 출시한 ‘NH장터한우면’이다. 라면업계에선 처음으로 우리 한우와 사골을 사용해 만들었다는 ‘NH장터한우면’의 모든 것을 알아봤다.

출시 4개월만에 260만개 판매

경기 이천시 부발읍 무촌리에 위치한 (주)팔도 이천공장.

이곳 이천공장은 종합식품기업인 (주)팔도가 운영 중인 라면 전문공장으로 ‘NH장터한우면’이 생산되는 곳이다. 1983년부터 라면사업에 진출해 30여년간의 (주)팔도의 라면 노하우가 집결된 곳인 만큼 최신식 설비를 바탕으로 필요한 물량을 실시간으로 파악, 생산량을 조절함으로써 항상 신선한 제

품, 안전한 제품을 만들고 있다.

총 10개 라인에서 라인당 1일 20만개씩 쉼없이 라면이 생산되고 있다. 이곳에서 ‘NH장터한우면’은 지난해 9월 출시 후 4개월 동안 260만개 가량이 생산돼 농협 하나로마트를 통해 판매됐다. 매월 65만개 가량이 판매된 셈이다. 생산량은 농협 하나로마트의 판매량에 따라 조정하고 있다.

치열한 라면시장에 ‘한우’로 차별화

‘NH장터한우면’은 농협중앙회에서 기획하고 (주)팔도에서 생산하는 ‘농협 PB라면’이다.

(PB : Private brand - 독자상표상품으로써 유통업체가 제조업체와의 제휴를 기반으로 특정 상품을 생산, 유통하는 개념)

이마트나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들이 각자 자사 PB라면을 판매하고 있는 상황에서 농협도 자체 PB라면이 필요하다는 판단아래 지난해 2월부터 (주)팔도와 함께 본격적인 상품화 작업에 착수했다.

문광문 (주)팔도 마케팅팀 브



랜드 매니저는 “제품 개발 시 농협만의 특성을 살리는 게 가장 어려웠다”며 “경쟁업체에 비해 농협은 안전함과 건강한 이미지, 농·축산물에 대한 품질 우위를 가지고 있고 농협하면 생각나는 상품이 쌀, 한우라고 분석돼 한우를 원료로한 라면을 개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농협이라는 이름을 단만큼 ‘NH장터한우면’은 기존 라면들과의 차별에 중점을 두었다.

우선 지난해 3월부터 농협중앙회 직원과 각계 각층을 대상으로 총 6차례에 걸쳐 관능평가를 실시해 ‘한우의 고소하고 진한 맛과 장터의 서민적인 얼큰함이 조화’된 최적의 맛을 찾았다.

‘NH장터한우면’의 가장 큰 특징은 100% 순수 한우사골 엑기스분말과 한우쇠고기 분말을 함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분말스프내에 사용한 2차 원료도 모두 한우를 원료로 사용했으며, 웰빙 트렌드를 반영해 기존 시판 라면과 달리 나트륨 함유량을 전체적으로 10% 가량 줄였다.

가격도 서민식품이라는 라면의 특성상 (주)팔도



의 주력 상품인 ‘신라면’과 비슷하게 개당 630원으로 책정해 소비자의 부담을 줄였다.

이같은 제품에 대한 노력 덕에 ‘NH장터한우면’의 인기는 시간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최민우 (주)팔도 직판영업팀 과장은 “좋은 원료와 농협이라는 이미지에 힘입어 출시한지 얼마되지 않았지만 현재 농협 라면코너에서 판매량으로 7위를 달리고 있다”며 “향후 한우의 함량을 좀더 높인 프리미엄급 라면도 개발 중이다”고 전했다. ㉞

인터뷰

문광문 (주)팔도 마케팅팀 브랜드 매니저

합리적 판매가격 형성...한우 함량 극대화 우리 축산물 원료로 우수상품 개발 노력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하는 색다른 라면을 만드는 게 팔도의 정신이라고 보면 한우는 매력적인 소재라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원가문제로 수입산 원재료를 사용하는 라면업계에서 한우만을 이용한 제품을 생산한다는데 뿌듯함도 느낍니다.”

문광문 (주)팔도 마케팅팀 브랜드 매니저는 ‘NH장터한우면’에 대한 애정을 이같이 전하며 앞으로도 우리 농축산물을 활용한 라면 개발을 시도하겠다고 밝혔다.

문 매니저는 “서민의 대표 먹거리가 라면이라서 판매가격을 고려해 한우 함량을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더불어 “한우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한우를 원료로 합리적인 가격에 품질 좋고 우수한 상품을 개발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우고기 예찬

주선태 교수(경상대 축산학과, 필명 : 필로)

아! 한우고기의 감칠맛이여!

※ 이 기고는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의 연구용역의 일환으로 제작한 '한우고기 예찬' 중 일부내용을 발췌한 것으로 연속 연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우자조금은 이번 연구내용을 책자로 발간해 소비자에게 왜곡된 한우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소고기는 원래 맛있기 때문에 수입쇠고기나 한우고기의 맛은 둘 다 거기서 거기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필로는 5년 전 <고기예찬>을 쓰면서 소고기를 국내산은 '소고기'라고 쓰고 수입육은 '쇠고기'라고 구별하여 표현하였다. 쇠고기는 '쇠(鐵)고기'란 뜻으로 쇠(철사)로 된 고기처럼 질진 고기를 의미한다고 하기에 한우고기를 사랑하는 애절한 마음을 담아 수입쇠고기를 그렇게 표현하였다.

한우고기 맛의 비밀 'MAF 조성'

한우고기의 마블링이 수입쇠고기에 비해 월등히 우수해서 맛있다는 것은 다시 거론하지 않겠다. 하지만 소고기의 맛은 근내지방 함량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육단백질의 구성과 상태도 맛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다. 육단백질의 상태, 즉 신선도나 숙성

도는 도축, 가공, 유통 단계에서 결정된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한우고기는 도축이 이루어진 후 소비자에게 팔릴 때까지 7~10일 정도 소요되지만 수입쇠고기는 최소한 1달 이상이 걸린다. 게다가 수입쇠고기는 대부분 냉동육으로 들어오고, 진공포장을 하여 냉장육으로 수입된다고 해도 장기간 진공포장으로 인해 다량의 육즙이 고기 속에서 빠져나온다. 그러니 어떻게 수입쇠고기와 신선한 상태에서 판매가 이루어지는 한우고기와 맛이 같을 수가 있겠는가?

한편, 한우고기는 확실히 돼지고기나 닭고기와 확연하게 다른 맛을 가지고 있다. 필로는 그 이유를 한우고기의 독특한 'MAF 조성'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MAF 조성'은 필로가 만들어낸 말로 근섬유(Muscle fiber) 조성, 아미노산(Amino acids) 조성 및 지방산(Fatty acids) 조성을 말한다.



한우고기는 다른 육류에 비해 적색근섬유 비율이 높기 때문에 돼지고기처럼 무르거나 흐물흐물 거리지 않고 단단한 조직감을 가지고 있다. 또 한우고기는 양질의 아미노산들을 풍부히 갖추고 있어 구수하고 감칠맛이 나는 핵산물질을 다량 만들어낸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한우고기는 마블링으로 불리는 근내지방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포화지방과 불포화지방의 비율이 절반 정도로 균형을 갖추고 있어 풍미가 남다르게 좋다. 따라서 필로는 이 독특한 “한우고기의 MAF 조성”이야말로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는 한우고기 맛의 비밀이라고 주장한다.

한우고기 지방이 부드러운 식감 좌우

그리고 한우고기의 전체적인 풍미에는 맛보다 냄새가 더 중요하게 작용한다. 일반적으로 조리하지 않은 한우고기는 단 냄새와 미미한 짭맛을 가지고 있으며, 동시에 금속성의 피맛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실제 한우고기의 진정한 풍미는 요리를 위한 가열처리의 과정 중에 발현되는데, 한우고기를 가열하면 약 1,000개 이상의 휘발성 물질들이 생성된다. 이렇게 생성된 휘발성 물질들은 가열 중에 비휘발성 전구체들과 서로 반응하여 한우고기의 독특한 맛과 냄새를 형성한다.

한우고기의 지방은 융점이 낮고 휘발성물질들을 많이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맛있는 냄새를 책임지는 1차적인 물질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한우고기의 지방은 한우고기를 입안에 넣고 씹을 때 부드러운 식감을 느끼게 한다. 한우고기의 단백질은 가열하면 단단히 굳어지지만 지방은 녹아나기 때문에 요리된 한우고기의 조직감을 부드럽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꽃등심이나 살치살 같이 지방함량이 많은 부위는 구어 먹어야 제맛을 음미할 수 있다.

감칠맛 성분은 바로 ‘이노신산’

한편, 한우고기에는 식물성 식품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감칠맛이란 것이 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단맛(甘味), 쓴맛(苦味), 짭맛(塩味) 및 신맛(酸味)은 잘 알고 있으나 감칠맛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지 못한다. 감칠맛은 학계에서 우마미(旨味, umami)로 알려지고 있는데, 맛에 대해 연구를 많이 하는 일본에서 발견하여 명명한 것이다. 즉 맛잇한 듯 구수하면서 자꾸 끌리는 신비한 맛을 발견하고, 이것을 우마미로 명명하였다. 그래서 오늘날 모든 식품의 맛은 단맛, 쓴맛, 짭맛, 신맛, 감칠맛의 5가지로 표현된다. 그러므로 만약 한우고기를 먹지 않고 채식만 한다면 이 감칠맛을 즐기지 못하는 안타까운 인생이 된다.

확실히 한우고기를 잘 구워 입에 넣고 씹다보면 식물성 식품에서는 느낄 수 없는 감칠맛을 느낄 수 있다. 이것은 한우고기의 단백질이 분해되어 나오는 아미노산들에 의해 만들어지는 맛인데, 이런 유리아미노산들이 만들어내는 맛 중에 특히 글루탐산이 감칠맛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한우고기 특유의 감칠맛의 성분은 바로 이노신산(inosinic acid)이다. IMP로도 알려져 있는 이노신산은 생체에너지라고 할 수 있는 ATP가 분해되면서 생긴다. 따라서 움직임이 없는 식물들은 ATP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노신산을 거의 생성하지 못한다. 하지만 운동을 하는 한우의 근육에는 ATP가 다량 함유되어 있고, 따라서 한우고기 속에서는 많은 이노신산이 만들어진다. 한우고기 속에서 많이 생성되는 이노신산은 핵산조미료의 핵심원료로 사용되는 물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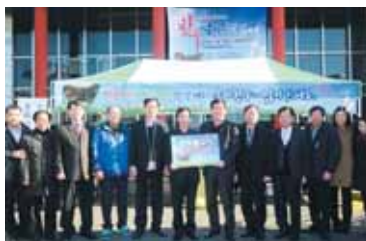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야채나 콩과 같은 식물성 식품에도 글루탐산이 있지만 한우고기에 비해 감칠맛이 없는 결정적인 이유는, 한우고기에 있는 이노신산이 글루탐산과 함께 맛 성분들의 강도를 폭발적으로 증폭시키기 때문이다. 즉, 이노신산이야말로 한우고기의 감칠맛을 책임지는 결정체인 것이다. 그러므로 한우고기가 괜히 감칠맛이 나는 것이 아니다. 정말 감칠맛의 성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감칠맛이 나는 것이다.㉞

한우와 함께 따뜻한 겨울 보내세요

연말연시 '사랑의 한우국밥과 한우나눔 행사' 진행

연말연시를 맞아 한우자조금과 한우협회는 소외된 이웃에게 사랑의 한우국밥 및 한우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우선 한우협회 중앙회는 지난달 17일 서울 관악구청에서 '사랑의 한우나눔행사 전달식'을 개최해 관악



▲ 경남-한우한마당 대축제



▲ 울산-한우나눔행사

구 관내 소외계층에게 한우고기 840kg, 한우곰탕 3,000개 등 3,200만원 상당을 전달했다. 이어 한우 사랑나눔봉사단은 기초생활수급자 가정과 불우이웃을 방문하여 한우곰탕 배식과 돌보미 등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이번에 전달된 한우 불고기와 국거리리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관악구 관내 700세대에 전달하고 한우곰탕은 반석희망의집 등 16개소와 장애인 등 불우이웃 시설에 관악푸드마켓에 보내졌다.

또한 한우자조금과 한우협회 경남도지회, 경남농협은 지난달 12일과 13일 경남농협지역본부 앞 상설 직거래장터에서 '한우 한마당 대축제'를 개최하여 한우할인판매 및 한우시식회, 경품권 추첨 등을 진행했다. 지난달 12일에는 경남도청을 통해 사회복지시설 14곳에 2500만원 상당의 한우고기를 전달했다. 이어 지난달 23일에는 경남 고성군청에 한우사

골 곰탕 1,000팩(싯가 500만원 상당)을 이학렬 군수에게 전달해 27일부터 관내 복지시설에 전달했다.



▲ 서울-사랑의 한우국밥

이에 앞서 한우협회 울산시지회와 한우자조금은 지난달 5일 울주군청을 방문해 신장열 군수에게 500만원 상당의 한우고기를 전달하며 연말연시 소외된 이웃에 온정을 베풀었다.

한편 전국한우협회는 2013년 한우나눔행사를 통해 전국의 어려운 이웃에게 한우 2만6,540kg(13만 2,700인분)을 전달했으며 4만2,770명에게 사랑의 한우국밥을 전달하고 있다. ㉞

안전한 우리한우가 '최고' 달천초에서 한우 우수성·등급제 교육

한우자조금과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지난달 20일 충주 달천초에서 한우의 우수성과 쇠고기이력제 및 검수시스템 등의 교육을 통해 급식용 축산물의 안전성을 홍보했다.

학생들은 한우의 우수성과 급식용 축산물의 안전성을 담은 동영상 시청한 후, 저지방 부위로 만든 불고기를 시식했



다. 또한 이날 충주 람세스 한우농장에서 모범학생으로 선정된 5명에게 장학금 50만원을 전달해 더욱 의미 있는 시간이 됐다.

한우 직거래장터로 저렴한 한우사세요

롯데백화점 4개지점에서 최대 50% 할인판매

한우자조금은 지난달 20일부터 22일까지 대구 롯데백화점 상인점 지하1층에서 직거래장터를 열어 안심, 등심, 채끝, 양지, 사골, 우족 등 다양한 부위를 시중가 대비 최대 50% 저렴하게 판매했다. 1등급 100g 기준 안심과 등심 5,500원, 국거리·불고기 2,000원에 판매하며, 사골과 양지는 100g 기준 각각 1,000원과 3,500원에 판매했다.

또한 일정금액 이상 구매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기념품을 증정했다. 이와 함께 불고기 시식행사, 한우 부위별 닥트 게임을 통해 맞춘 부위에 따른 영양소 및 요리 소개와 함께 기념품도 증정한다.

또한 지난달 14일부터 15일까지 롯데백화점 서면점, 지난달 6일부터 8일까지 롯데백화점 센텀시티점, 지난 11월 29일부터 2일까지는 롯데백화점 서울 노원점에서 최대 50% 저렴하게 판매하며, 다양



한 이벤트를 진행해 소비자들의 얼어붙은 소비심리를 유도했다.

한우자조금 강성기 위원장은 “연말연시 저렴하게 명품한우를 구입하여 맛있는 한우로 소비자와 농가 모두 따뜻한 연말을 보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

牛情가득! 행운가득!

한우자조금 설날맞이 온라인이벤트 진행

한우자조금은 오는 13일부터 29일까지 한우를 구매하거나 함께하는 모습을 인증샷으로 찍어서 응모하면 추첨을 통해 경품을 증정하는 온라인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이벤트는 다양한 온라인 매체를 통해 광고를 진행하며 광고 배너를 클릭 시 각 유통업체의 할인정보 및 오는 27일부터 28일까지 청계광장에서 열리는 직거래장터 등을 안내해 소비자들이 저렴하게 한우를 구매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참여방법은 한우와 함께하는 모습을 인증샷을 찍어 블로그나 SNS에 등록한 후 해당 게시물의 URL을 이벤트 페이지의 댓글로 남기면 된다. 추첨을 통해 아이폰4, 한우 선물세트 등 다양한 경품을 증정할 예정이며 당첨자는 2월 11일에 발표할 예정이다.

즐거운 영화데이트 속 한우를 알려라

대한극장에서 한우서포터즈 프로모션 진행

한우자조금은 지난달 21일 서울 충무로에 소재한 대한극장에서 한우서포터즈 프로모션 행사를 진행했다. 지난달 10일부터 17일까지 한우 114 및 SNS 등을 통해 한우사랑 아이디어 공모 및 한우서포터즈의 포부를 밝힌 응모자를 대상으로 총 300명을 초청해 한우농가 응원 메시지 작성 및 레크레이션 등을 통해 경품을 증정했다. 또한 영화 시작전 한우 홍보영상 상영을 비롯해 극장 옥외광고 등을 통해 한우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등 다양한 홍보를 진행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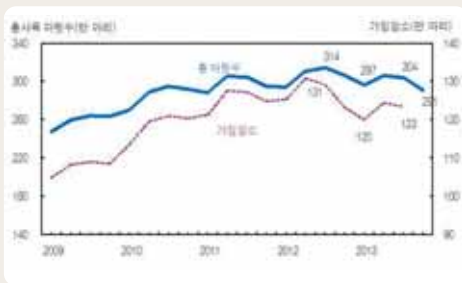
1월 한우 수급동향과 전망

♣ 사육 및 수급 동향

▷ 도축 증가로 12월 한·육우 사육마릿수 전년대비 5% 감소 추정

- * 도축 증가와 송아지 생산 감소로 12월 사육마릿수 작년(306만마리)대비 4.9% 감소한 290만 마리로 추정(통계청)되며, 1~11월 한우 정액판매량 전년대비 6.6%, 평년대비 12.8% 감소(168만8,000스트로우), 10월 정액 판매 작년보다 늘어 번식의향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 * 2014년 3월 사육마릿수 올해(297만마리)보다 감소한 277~280만마리 전망

◆ 한·육우 사육마릿수



자료 : 통계청, 한국종축개량협회.

◆ 한·우 정액판매량 추이



♣ 도축 및 수입동향

▷ 암소와 거세우 증가로 1~11월 도축마릿수 전년대비 13% 증가

- * 1~11월 한우 도축은 전년대비 13.1% 증가한 87만2,000마리로 한우 암소 46만9,000마리(전년대비 18.1% 증가), 거세우 37만7,000마리(18.2% 증가)이며, 10월 이후 암소도축비율이 50% 이하로 번식으로의 전환이 추정된다.
- * 내년 1~2월 국내산 쇠고기 공급은 전년대비 6~8% 감소 전망
- * 1~11월 쇠고기 수입량(검역기준)은 전년대비 0.4% 증가한 23만1,000톤

♣ 소비동향

▷ 자조금을 활용한 할인행사 지속

- * 한우고기 소비촉진을 위해 대규모 할인행사 지속되어 대형유통업체의 재고가 부족(자문위원 모니터링 결과)하며, 수산물 소비는 회복세로 추정(유통업체 조사 결과)된다.

♣ 가격전망

▷ 내년 1월 이후 한우 도매가격 전년대비 강세 전망

- * 내년 1~2월 국내산 쇠고기 공급은 전년대비 6~8% 감소 전망, 구이용 수입육 재고 감소로 수입량 전년대비 다소(1~3%) 증가 전망
- * 쇠고기 공급 감소와 설 명절까지 할인행사가 계획되어 있으며 내년 1월 한우 도매가격 전년 동월보다 상승한 1만4,000~1만5,000원/kg(지육) 전망
- * 2월에도 1만3,000~1만4,000원으로 전년대비 강세 전망
[작년 : 1만2,207원(438만원), 평년 : 1만3,330원(479만원)]

♣ 가격동향

송아지 가격동향

▷ 송아지 생산마릿수 감소로 12월 송아지 가격 전년 동월보다 20~27% 상승(KREI)

– (암송아지) 마리당 1,300천원 수준에서 계속적으로 상승 추세

* (' 13.10월)1,197천원 → (11월)1,280천원 → (12.31)1,376천원

– (수송아지) 마리당 1,900~2,000천원 수준에서 전반적으로 상승 추세

* (' 13.10월)1,988천원 → (11월)2,001천원 → (12.31)2,233천원

큰 소 값 동향

▷ 1월 한우 도매가격 전년 동월보다 상승한 14,000~15,000원 전망

– (도축마릿수) 일 도축물량은 4,000두 수준으로 전년 동월대비 20.6% 증가

* (' 12.12.1~31일) 80,468마리 → (' 13.12.1~31일) 97,063마리(20.6% ↑)

– (도매시장 경락가격) 할인행사와 수산물 대체수요 증가로 한우 도매가격 상승 추세

* (' 13.11월) 13,666원 → (' 13.12.31일) 14,205원

◆ 한우농가 소득 추정(12월 한우평균 도매가격 기준)

(단위 : 천원)

등급	도매가격(원/kg)	가격(A)(600kg)	경영비(B)(600kg)	소득(A-B)
1++	17,333	6,203	4,630	1,579
1+	15,611	5,592		962
1	14,364	5,145		515
2	12,144	4,350		△280
3	10,484	3,755		△875

◆ 한우가격 및 출하 동향(12월 기준) - 국내 소 도축 / 출하 현황 및 쇠고기 가격

(단위 : 원/kg)

구 분		평년 ('08~'12)	2012년		2013년		대비		
			11월 (A)	12월 (B)	11월 (C)	12월 (D)	C/A	D/B	
도축마릿수(마리) (일평균도축마릿수)		654,734 (2,480)	72,346 (3,288)	71,237 (3,562)	75,180 (3,580)	87,601 (4,171)	3,9 (8,9)	23,0 (17,1)	
경매마릿수(마리) (일평균경매마릿수)		246,000 (932)	35,584 (1,617)	35,479 (1,774)	38,379 (1,828)	43,817 (2,087)	7,9 (13,0)	23,5 (17,6)	
도매시장 경락가격 (원/kg) (농가수취가격)	평균	14,167 (5,076)	12,612 (4,518)	12,674 (4,540)	13,666 (4,895)	14,177 (5,078)	8,4	11,9	
	거세우	15,256 (5,483)	14,162 (5,090)	14,257 (5,124)	14,372 (5,165)	14,837 (5,332)	1,5	4,1	
	비거세우	10,913 (3,870)	10,845 (3,846)	10,909 (3,868)	11,866 (4,208)	11,678 (4,141)	9,4	7,0	
가축시장 거래가격 (천원/마리)	암소		4,442	3,496	3,471	4,116	4,145	17,7	19,4
	송아지	암	1,983	869	861	1,280	1,344	47,3	56,1
		수	2,124	1,587	1,523	2,001	2,033	26,1	33,5
한우 불고기(1등급/kg)		33,287	32,290	32,650	30,510	30,510	△5,5	△6,6	
한우 등심(1등급/kg)		64,477	62,820	61,120	60,710	60,710	△3,4	△0,7	

구한말 후 연초 ‘신수점’에 토정비결 활용

생년월일만으로 일년열두달 길흉화복 점쳐

우리 민속명절인 설날의 풍속 가운데 하나가 한 해의 신수(身數·운수)를 미리 알기 위해 점을 보는 것이었다. 새마을운동과 경제개발이 본격도에 오르기 전까지만 해도 정월에 시골의 경우, 마을에서 글줄깨나 읽은 사람의 집에 모여 ‘토정비결(土亭秘訣)’로 한 해의 운수를 점쳤다. 1970년대 이후에는 도시의 거리마다 토정비결을 봐주는 점복사들이 본격적으로 등장했지만, 최근 들어 신수점의 풍속은 점점 사라져 가고 있는 게 현실이다. 물론 자신에게 닥칠 미래를 알고자 하는 욕구 때문에 컴퓨터를 이용한 인터넷 토정비결 등 운세사이트와 운세애플리케이션 등은 나름대로 성행하고 있지만 말이다.



[발췌 : 문화일보 · 스포츠서울닷컴]

길흉화복 점치는 민간역학 결실

‘토정비결’은 조선 중기 학자인 토정 이지함(1517~1578)의 저술로 알려져 있지만 근거는 없다. 세시풍속을 기록한 유득공의 ‘경도잡지(京都雜記)’와 홍석모의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 등 18세기 말과 19세기 중반 완성된 자료에도 등장하지 않기 때문이다. ‘동국세시기’(1849)에 오행점(五行占)으로 한 해의 신수를 본다고 기록돼 있어 토정비결의 등장이나 정초에 토정비결을 보는 세시풍속 모두 구한말 이후인 것으로 보인다. 민간에서 한 해의 신수를 보는 신수점의 경우 조선 중기 이래로 율점이 유행하다가 후기로 오면서 오행점,

말기에 토정비결이 각각 등장했다는 게 학계의 일반적인 견해다. 임채우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 교수는 “간단한 한두 구절의 점사를 가진 율점이나 오행점보다 토정비결이 열두 달의 운수를 자세하게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광복 이후 율점과 오행점 등이 급격히 쇠퇴한 반면, 토정비결은 꾸준히 살아남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귀인의 도움을 받는다’거나 ‘구설수를 조심하라’는 등 개인의 길흉화복을 주로 보는 토정비결과 율점 등은 조선의 대표적인 잡점이자 민간역학의 결실이다. 토정비결은 자주 가운데 생시를 제외하고 생년월일만으로 3괘(卦)를 만들며 ‘주역’은 64





괘인 반면, 48괘만 사용한다. 백 단위인 상괘(上卦), 십 단위인 중괘(中卦), 일 단위인 하괘(下卦)를 합해 세 자릿수로 된 괘를 완성시켜 책에서 해당 숫자를 찾아보면 된다. 상괘는 8개, 중괘는 6개, 하괘는 3개가 있는 토정비결은 111에서 863까지 모두 144괘로 구성돼 있다.

열두 달 매월 운수풀이가 나오는 지금과 같은 형태의 토정비결은 광복 이후 출간됐다.

직장인 절반이상 '심리적 안정' 위해 본다

우리나라 직장인 절반 이상이 새해를 맞아 한 해 운세를 미리 점쳐보기 위해 운세나 토정비결을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취업 포털사이트가 직장인 327명을 대상으로 '직장인 신년운세'에 관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절반 이상인 53.5%의 직장인이 새해를 맞아 신년운세(토종비결, 점)를 봤거나 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운세를 보는 이유를 묻자 41.7%는 '그냥 재미로 본다'고 답했으며, 근소한 차이로 '심리적 안정을 위해 본다' (41.1%)는 답변이 이어져 직장인 대부분 가벼운 마음으로 운세를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토정비결은 십간(十干) 십이지(十二支)의 태세(太歲), 월건(月建), 일진(日辰) 등을 따지고 주역(周易)의 음양설에 기초해 144개의 괘(卦)를 만들어 누구나 생년월일만으로 간단하게 일년 열두달의 길흉화복을 점칠 수 있게 정리한 책이다.

토정비결이 나온 후 정월 초승이면 그 해의 운세를 알아보는 것이 민간의 세시풍속이 될 정도였다.

조언은 참고하되 집착·자만은 금물

토정비결에 담긴 내용이 정확히 맞았다기 보다는 당시 백성들이 새해를 맞아 새로운 희망을 품고 흥한 징조를 피해가고자 한 심증을 토정비결이 꿰뚫고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자신의 신년운세와 토정비결에 나타난 내용에 대한 과도한 집착은 안 하느니만 못한 것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한 역술가는 "새해가 시작되면 미래에 대해 궁금하거나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자신의 앞날을 내다보고자 유명한 철학관이나 철학원을 찾게 된다"며 "그러나 점술가의 조언은 참고하되 너무 집착 또는 자만하거나, 포기하는 등 중용을 잃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



무병장수 · 가내평안 기원 문안인사 ‘세배’

세뱃돈 종류도 다양...진정한 의미·예의 실종도

[발췌 : 연합뉴스]

세배는 새해를 맞아 손아랫사람이 손윗분들에게 인사를 드리는 풍습으로 동북아시아권, 특히 한국, 중국, 일본에서 크게 다뤄지고 이뤄지고 있으며 유교권 국가일수록 이러한 풍습이 강하게 남아있다. 한국과 중국에서는 매년 음력 1월 1일 일본에는 양력 1월 1일에 이루어진다.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드리는 문안인사

세배는 효(孝)를 과시하여 예의를 갖추고 무병장수와 가내평안을 기원하는 것은 물론 새해에 첫 시작을 알림으로서 서로 덕담과 세뱃돈이 오고가는 훈훈한 풍습이다. 원래는 덕담을 해주면서 음식을 줌 나눠주거나 했고 지금처럼 돈을 우선시한 것을 아니었다고 한다. 요즘 세배하는 아이들은 고개만 숙이면 돈을 벌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 같다고 말하는 어르신들도 있다. 세배하고 돈을 받는데 미안하다고 느껴진다면 어른이 되는 과정이라는 말도 있다. 이런 경우는 세배보다는 용돈이라는 표현이 더 맞을 듯하다.

보통 세배는 설날 당일 가족이 모여서 한다. 세배 순서는 당연히 향렬 순을 따지며 높으신 분이 먼저 받는 것이 예의이다. 일반적으로 조부모→부모 향렬 순으로 내려가며 나이차이가 많이 나지 않으면 같은 향렬 간에는 세배를 하지 않는다. 물론 향렬과 나이가 역전된 경우에도 거의 하지 않는다. 할아버지 향렬이 아들 향렬에게 문안인사를 드릴 수는 없으니까.

70~80년대에만 해도 이웃집에 찾아가서 세배를 드리기도 했지만 현대에는 핵가족화는 물론 이웃 집과의 교류 자체가 적어져서 가족 간에나 하는 풍습이 되었다.

남자는 왼손이 위, 여자는 오른손이 위로 한 번만 한

다. 단 제사 때나 상중에는 이와 반대이며 두 번한다.

저축통장부터 전자화폐까지 세뱃돈 종류도 다양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설 세뱃돈의 적정 수준은 유치원생부터 초등학생까지는 1만원이 가장 적당하다는 답변이 전체의 55%를 차지했으며, 중학생은 3만원(41%), 고등학생은 5만원(38%), 대학생은 5만원(46%) 10만원(28%) 순이었다. ‘안 줘도 된다’는 답변도 14%로 나타났고, 세뱃돈을 주기 애매한 경우는 ‘취업준비생 조카가 세배할 때’가 전체의 22%로 가장 많았다.

뿐만 아니라 세뱃돈의 종류도 다양해지고 있다. ‘돈보다는 선물’이라는 명목으로 저축 통장이나 도서상품권, 온라인 교육 사이트 수강권 등도 등장했으며, 넷세대인 아이들을 위해 전자화폐로 세뱃돈을 주는 가정도 생겨나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유형의 세뱃돈이 등장하고 있지만, 우리의 세뱃돈 문화에서는 정작 의미를 찾아보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설 연휴를 즐기는 데 쓰라’는 용돈 성격만 강할 뿐 의미는 물론 주는 방식, 받는 방법에도 예의가 실종됐다는 비판이 있다. 일례로 중국과 일본, 베트남에서는 세뱃돈을 전용 봉투에 담아서 준다. 세뱃돈의 진정한 가치와 의미를 알지 못하고 세뱃돈을 주고받고 있다. 세뱃돈 풍습을 비롯해 설날 예의를 새롭게 확립하는 방안에 대해 다양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㉞



청소년한우맛체험



11.28 동패고(경기 파주)



12.4 고령중(경북 고령)



12.6 구산중(경남 김해)

소비촉진행사



12.6 경남 고성



12.12~15 제주



12.20~22 경북 상주

새로운 새해가 밝았습니다. 한우농가 여러분 모두 하는일이 잘되기 바라며, 행복이 가득하도록 기원합니다. 이번 애독자 퀴즈는 새해를 맞아 포부나 소원을 적어 한우협회, 한우자조금 홈페이지에 올려주세요. 우편접수도 가능하오니 아래 접수처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반드시 전화번호를 같이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을 게재하시는 분 중 추첨을 통해 5만원 상당의 송아지 설사 예방약을 드립니다.



애독자코너

우편접수처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21-19 제2축산회관 2층 전국한우협회 한우자조금소식지 담당자 앞

12월호 당첨자 중 한우관련 건배사를 소개합니다.

- ▶ 한우, 말만으로도 가슴 뜨거워지는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매일매일 우리는 그 뜨거운 무언가를 느끼며 살아왔고 살아갈 것입니다. 2013년 모두들 너무 고생 많으셔서 수고했다는 의미로 건배~!! (이병수 - 경기 김포시)
- ▶ 한우를 키우는 건 우리 삶을 지키고 키워나가는 일입니다. 광우병, FTA 다사다난한 일들이 우리 곁을 지나치며 힘들게 했지만, 우리는 잘 이겨 내왔고 우리 삶을 지켜왔습니다. 아무쪼록 올 한해 너무들 수고 많으셨고 이를 축하하는 건배를 제의합니다. (이순상 - 경기 김포시)
- ▶ 키우자 찌우자 마시자 : 한우농가에서는 소를 키우는 상황이기 때문에, 소를 열심히 키우고 소의 살을 열심히 찌우고 술을 마실땐 즐겁게 마시자 (박동주 - 경기 용인시)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홈페이지
www.hanwooboard.or.kr

전국한우협회 홈페이지
www.ihanwoo.org

12월호 정답자분들
축하드립니다!

이병수(경기 김포시), 이순상(경기 김포시), 박동주(경기 용인시)
박정우(강원 홍천군), 윤성춘(강원 양양군)

謹賀新年



한우는 우리가 지켜야 할
소중한 민족 문화유산입니다.